

# 군스월이원가



[해제]

<군산월애원가>는 전적(典籍) 형태의 필사본으로 내방가사로 분류할 수 있다. 단아한 궁서체로 쓰여 있으며, 줄글형태로 4음보 율격을 기본으로 하는 정격가사이다. 이 전적에는 <군산월애원가> 외에 <별교사>, <남산동이진사효행록>과 같이 수록되어 있으며, <군산월애원가>는 14면에 걸친 중편 정도의 가사이다. 현재 한국가사문학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작품은 군산월이라는 기생이 주인공이다. 1인칭 시점으로 노래하고 있지만 군산월의 친필은 아니고 다른 누군가가 옮겨쓴 것으로 보인다. 군산월이 살고 있는 곳에 김학사라는 선비가 유배를 왔다. 군산월은 고을 수령의 수청을 마다할 정도로 김학사에게 일부종신할 것을 약속했다. 김학사가 유배에서 풀리자 군산월도 김학사와 같이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하고, 정든 고향과 부모 형제에게 작별을 고하고 출발했다. 그러나 한참 가고 있는 도중에 김학사가 군산월에게 이별을 고한다. 비록 천첩으로 받아들였지만 후일 어떤 화가 미칠지 모르기에 김학사는 고심 끝에 이별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천벽력과도 같은 이별통고에 군산월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가련한 여자의 신세를 한탄할 뿐 여기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고 말뿐이다. 애원한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일 뿐이다. 군산월은 김학사와 이별하고서도 세월이 흘렀어도 여전히 일부종신의 자세로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홍안이 백발이 되도록’하는 구절로 보아 김학사는 후일 다시 찾겠다는 약속은 지키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원문]

스방이 훗치기도 옛법의 조치미라  
 넉들었지 면할손야 송거가 낙낙하고  
 도로가 오원하니 익달은일 만컨마난  
 부모동심 솜스촌이 느린다시 구존하니  
 너차즈리 만흘게요 존셔출 인편마다  
 철윤지정 알거시오 소친정회 설어말고  
 일신안보 반석갓치 너횡지 축심하여  
 출등현황 굿기직혀 시름업시 지느다가  
 세월이 유슈로다 금슈나름 치에하고  
 금안툰마 구비혀 주스사회 비횡서고  
 상형으로 울느와셔 부모을 귀령하고  
 형제남미 담녹하면 열친척도 되나리라  
 그아니 깃불소야 문여인정 못있이어  
 존조성편 기록혀 너히들기 전후느니  
 그리울적 들시보라 어무교훈 잊지마라

군산월이원가  
 어와 괴박홀스 총여신명 기박후스  
 고이하다 양반형실 이다지도 무정후오  
 세상의 이별잇소 이별마다 쳐량후다  
 역수의 중스이별 번송의 군조이별  
 후교의 봉우이별 호지의 소군이별

이별이별마다 슬푸거든 하물며 유정이별  
스람마다 슬푸거든 후물며 유정이별  
스람마다 후긴는가  
싱초목의 불이타니 다투되 괴싱이느  
형실이야 괴싱일가 십구세 이니광음  
일부중신 후조셔라  
절형이 늙하기로 본관수청 아니하고  
심규의 몸을쳐히 이전스기 슬퍼보니  
남원의 춘양이난 절형이 늙하기로  
옥중의 죽기될되 이스소식 반가와라  
이다지 직히되여 어스안전 솟치되고  
평양의 옥단춘이 어스이별 멋다린고  
영광정 큰존춘의 거린으로 오신스람  
남군인줄 니가알고 김학스 이번정비  
학스의 익분인가  
이니몸의 연분이셔 연분초조 와것는가  
연분이 증코중히 하날님이 돌너는가  
전싱의 연분이셔 승상님이 보닉신가  
칠보스 첫안면의 연약이 금석갓다  
칠보스 거형하고 본집의 도라와셔  
나으리 믹시기을 예의로 믹셔보시  
늑예은 업슬망정 스군체법 다를손가  
어와 감축할스 천은이 망극하니  
되명을 노으시고 회빅하라 분부하니  
나으리 거동보소 북향하여 스빅하고  
문발을 손의들고 본관의 드러가셔  
희희낙낙 즐겨하고 형증을 수습하여  
본관의 하난말이 본관을 하직하니  
군스월을 어이할가 시려 후난잇가  
학스의 후논마리 군스월을 여기두고  
고향의 도라간들 오미불망 어이할고  
연약이 이셔스니 다리고 가오리다  
본관의 성덕보소 남북두고 형지죽고  
님형의 하논마리 믹시고 즐가거라  
철의강손 뒤도샹의 김학스 췌치되여  
직회를 위로하고 조심하여 잘가거라  
군스월이 그말듯고 일회일비 그지업다  
철이타향 가조하니 부모동싱 그리워라

아니가조 싹각하니 이왕의 김학스의  
천첩이 되여시니 아무리 천첩인들  
스중제법 모을손가  
마음의 괴한체로 부모동심 손을잡고  
은근이 위로하되 이왕의 김학스를  
군조로 섬겨시니 김학스 회빅하여  
향손의 도라가니 불싱이부 이닉철기  
나도이져 가나이다 아모리 괴싱이느  
횡실이야 다를손가 여조유흥 원부모라  
출가외인 싹각말고 만세만세 안보하여  
무양하기 지닉시면 타향의 몸을찌셔  
철이말이 멀고머나 다시와셔 보오리다  
부모의 하느말이 온야온야 그리히라  
온야온야 즐거라 네성품 닌알뜻시  
못가라 헉깃나야 아모리 조석인들  
스군제법 싹각하고 불원철이 갈나하니  
닉엇지 말일손가  
남복을 가라입고 춘풍의 말을타고  
향손을 떠느오니 고향이 헉직일시  
나으리 가신평척 귀흥이 도도하여  
어서오라 급히가조 품설이 고이하니  
조충의 너으몸이 상하기 쉬우리라  
적각손 일연만의 향손을 향히셔니  
시각이 민망하고 일시가 숨쥬갓다  
연약한 괴집몸이 여러날을 길의나셔  
노독이 턱심하다 닌온길 싹각하니  
전싱인가 몽중인가 탄막의 줌을조고  
아춤의 조반후의 횡장을 수습하여  
술먹고 이러셔니 나으리 거동보소  
변식하고 하느마리 가련하고 어엿뿌다  
너을처음 만닐적의 연약이 금석갓고  
인정이 턱스갓히 춘풍숨월 활기시와  
츄월춘풍 조흔씨와 온갓비회 요란한뒤  
심스가 수란하고 향스가 간절하느  
쥬야로 너을다려 곱회을 위로하여  
향슈손천 갖치가셔 슬허의 두조더니  
지금와 싹각하니 난쳐하고 어려와라  
닉본지 즐못하여 너을이제 쏘겨시느

섭섭히 아지말고 조히조히 즐가거라  
군손월이 감씩놀니 눈물짓고 흥난마리  
이기참아 원말이요 바릴심스 계시거든  
칠보스 거형세예 아조아조 멀이하지  
무단이 언약릿고 몇번을 몸을급히  
든정이 턱스갓히 허다스람 다바리고  
힘코힘한 먼먼기릭 믹시고 오왔더니  
그다지도 무정호오 그다지도 야속호오  
손손수수 멀고먼디 도라가라 분부호니  
이군불스 충신절기 나으리 허실빅옷  
이부불경 구든절기 손여의 죽분이라  
초슈오스 힘한기릭 이별하고 도라가면  
적적한 빈방안의 독슈공방 어이하며  
십구세 이니광음 속절업시 되여고나  
연연한 이니몸을 몇철이 훌쳐다가  
스고무친 타도타향 귀로망망 이니헝지  
이다지도 바리시오  
나으리 하난마리 괴야의 김푼정을  
이별을 당두하니 철석안인 이니간중  
점점이 녹아나고 거문머리 푹발될듯  
니마음 이르거든 연연한 너의심회  
오죽하며 오죽할가 만단으로 외로하고  
누수로 위로하여 다시보즈 수이보자  
명연승월 쏫피거든 닉한번 갈거시니  
부딕조히 즐가거라  
남조의 평싱일을 미리김필 못하느니  
다시엇지 못볼손야 군손월리 하난마리  
가련하오 이니신세 처량호오 이니신세  
다시엇지 보오릿가 이철이 천의받기  
겨영호여 오실잇가 다시보즈 당부하면  
나으리게 악담이요 영이별 허즈하니  
손여신세 금안이라 구양곳 아니시면  
북천을 어이오며 손여곳 아니시면  
이별허리 뉘이실고 이길노 도라가면  
화촉동방 빈방안의 이탁업난 이니신세  
뉘을밧고 스존말고 히헝성 춘야월의  
우미인이 처량하고 푹수청스 저문날의  
정부심회 처량하고 압남스 상상봉의

망부석 슬푸도다 칠월칠석일 오죽교의  
견우직여 부러와라 김학스 허난마리  
션빅의 즐한몸이 곱고고은 너으쥬식  
아름다운 너의얼굴 유정후기 붓그럽고  
이별하기 야속하다 박절하고 섬섬하다  
무스히 도라가셔 간특한 너의심중  
이부도 상키마라 이별쥬야 먹어바라  
쥬인을 불너니야 술한존 둘너좁고  
먹어바라 쥬부시요 눈물이 흘너나려  
반존수리 한존되고 한존수리 넘쳐고나  
다감다감 도라셔셔 남북으로 향히설지  
쏘다시 당부하되 즐가거라 즐가시오  
군산월이 거동보소 쥬파을 년젓드러  
학스풍취 다시보고 우시며 허락호느  
그우슴이 진정인가 어이업는 우슴되고  
눈물이 소스나고 우름화히 우슴이라  
노상강 기력이 쥬을일코 나라간듯  
무름이 벽도화가 모촉광풍 쥬러진듯  
양협의 눈물날려 흥상의 슈첨흔듯  
흥도화의 비마진듯 한거름의 도라보고  
두거름의 보고 거름마다 도라보니  
손천도 낫치업고 일월이 무광한듯  
아춤의 쥬난기리 일낙셔손 다리쓰니  
하로운길 싱각하니 멋이느 되엇든고  
아르쥬막 떠나와셔 촌촌전진 동일기리  
웃쥬막의 속소되니 스고무친 쥬막방의  
무정한 발근달은 화중총 놓하난디  
난간의 비겨 전후스을 싱각후니  
어이업고 괴가막혀 속익이 방불하다  
흔쥬그말노 허난마리 이곳지 어딴미요  
북천이나 남천이나 고향이나 타행이나  
전싱이나 이싱이나 김학스가 무정튼가  
군산월이 박보튼가 이곳디 쥬쥬한들  
쥬난줄을 뉘가알며 셔른스정 뉘가알고  
사렴으로 눈물노 밤시우고 단독고신  
니한몸이 어딴로 가존말고  
킵셜은 분부하고 낙엽은 만손한되  
남북이을 분간업고 손도설고 물도션디

지향이 아득하여 오든길 심각하니  
벼면이 지니왔다 이를줄 아라스면  
익히느 보올거술 이지경이 뜻밖기라  
흙양의 도라간들 부모동심 어이보며  
원근친척 어이불고 비회을 즈위조  
근근이 도라가서 절형을 적히고서  
일부종신 흥여셔라  
총안이 퍽발되고 무릅히 귀념도록  
세월을 보닛시니 그야니 장할손가

남산동이진사효행록

각설이라

잇씩 숙종덕왕 즉위시의  
남산밋히 스난 이진스난 본이스족이라  
칠십노모울 믅시고 조석 걸양하고  
부인은또한 나지면 침션하고  
밤이면 길숨혀여 노친을 봉양하드니  
일일은 졸연이 못친의 병이 중하거날  
약으로 치료하되 퍽약이 무효라  
진스와 부인이 하망국하야 하날게 스빅하고  
진스와 부인이 방의 드러오니  
눈얼 써보시고왈 정명이라 엇지스리오  
하시고 인하야 운명하시거날  
부인과 진스 신체을 붓들고 덕성통곡하며  
천지를 부로적시며 통곡한들 씌여올가

[현대역]

사방에 흘리기도 옛법의 조치이라  
너희인들 어찌 면할소냐 상거112가 낙락113하고  
도로가 요원114하니 애닦은 일 많건마는  
부모동생 삼사촌이 느린듯이 구존115하니  
너 찾을 이 많을게요 잔서찰 인편마다  
천륜지정116 알 것이오 소친정회117 설워 말고  
일신안보118 반석타이 너 행지 착심119하여  
출등현행 굳게 지켜 시름없이 지내다가  
세월이 유수로다 금수날은 치에하고  
금안준마 구비하여 주사사회 비행서고  
상행으로 올라와서 부모를 귀령하고  
형제남매 담락하면 열친척도 되느리라  
그 아니 기별소냐 문여인정 못잊어  
존자성편 기록하여 너희들께 전하노니  
그리울 적 들춰120보라 어머니 교훈 잊지마라

군산월애원가

어와 기박1할사 참여신명 기박하사  
괴이하다 양반행실 이다지도 무정하오  
세상의 이별이 또 이별마다 처량하다  
역수2의 장사3이별 번상4의 군자이별  
학교의 봉우5이별 호지6의 소군이별  
이별이별마다 슬프거든 하물며 유정이별  
사람마다 슬프거든 하물며 유정이별  
사람마다 하겠는가 생초목의 불이 타네  
내 본디 기생이나 행실이야 기생일까  
십구세 이내광음7 일부종신8 하자서라  
절행9이 높다기로 본관10수청11 아니하고  
심규12의 몸을 처해 이전사기13 살펴보니  
남원의 춘향이는 절행이 높다하기로  
옥중의 죽게될 때 어사14 소식 반가와라  
이다지 재회15하여 어사 안전16 꽃이 되고  
평양의 옥단춘이 어사 이별 몇달인고  
영광정 큰잔잔의 걸음으로 오신 사람  
낭군인 줄 내가 알고 김학사 이번 정배17  
학사의 액운18인가  
이내 몸이 연분있어 연분찾아 왔었는가



연분이 중하고 중해 하늘님이 돌렸는가  
전생에 연분있어 승상님이 보내신가  
칠보산 첫안면19의 언약20이 금석같다  
칠보산 거행하고 본집에 돌아와서  
나으리 모시기를 예의로 모셔보세  
육예21는 없을망정 사군체법 다를손가  
어와 감축할사 천은이 망극하니  
죄명을 놓으시고 회비22하라 분부하니  
나으리 거동보소 북향하여 사배23하고  
문발을 손에 들고 본관에 들어가서  
희희낙락24 즐겨하고 행장25을 수습하여  
본관이 하는 말이 본관을 하직26하나니  
군산월을 어이할까 싫어하나이까  
학사의 하는 말이 군산월을 여기두고  
고향에 돌아간들 오매불망27 어이할꼬  
언약이 있었으니 데리고 가오리다  
본관의 성덕보소 남북두고 형제죽고  
남행의 하는 말이 모시고 잘가거라  
천리강산 대도상의 김학사 거처28 되어  
객회29를 위로하고 조심하여 잘가거라  
군산월이 그말듣고 일희일비30 그지없다  
천리타향 가자하니 부모동생 그리워라  
아니가자 생각하니  
이왕의 김학사의 천첩31이 되었으니  
아무리 천첩인들 삼종지법32 모를손가  
마음의 괴로운 체로 부모동생 손을 잡고  
은근히 위로하되 이왕의 김학사를  
군자로 섬겼으니 김학사 해배33하여  
향산34에 돌아가니 불경이부35 이내 절개  
나도 잊어 가나이다 아무리 기생이나  
행실이야 다를손가 여자유형 원부모라  
출가외인 생각말고 만세만세 안보하여  
무양36하게 지내시면 타향의 몸을 떠서  
천리만리 멀고머나 다시와서 보오리다  
부모의 하는 말이 오냐오냐 그리하라  
오냐오냐 잘거라 네 성품 내 알듯이  
못가라 하겠느냐 아무리 자식인들  
사군체법37 생각하고 불원천리38 갈라하니

내 어찌 말릴손가

남북39을 갈아입고 춘풍의 말을 타고  
향산을 떠나오니 고향이 하직일세  
나으리 가신 풍채 취흥40이 도도하여  
어서오라 급히 가자 풍설41이 고이하니  
자중42의 너의 몸이 상하기 쉬우리라  
적객43산지 일년만에 향산을 향했으니  
시각이 민망하고 일시가 삼추44같다  
연약한 계집몸이 여러날을 길에 나서  
노독45이 태심46하다 나온 길 생각하니  
전생인가 몽중인가 탄막에 잠을 자고  
아침에 조반47 후의 행장을 수습하여  
술먹고 일어서니 나으리 거동보소  
변색48하고 하는 말이 가련하고 어여쁘다  
너를 처음 만날 적에 언약이 금석같고  
인정이 태산같아 춘풍삼월 화류시49와  
추월춘풍 좋은 때와 온갖 비회50 요란한데  
심사가 수란하고51 향사52가 간절하나  
주야로 너를 데려 객회를 위로하여  
향수산천 같이 가서 슬하의 두자더니  
지금와 생각하니 난처하고 어려워라  
내 본래 잘못하여 너를 이제 쓰겠으나  
섭섭히 알지 말고 좋게좋게 잘가거라  
군산월이 감짝 놀라 눈물짓고 하는 말이  
이게 차마 웬말이요 버릴 심사 계시거든  
칠보산 거행시에 아주아주 멀리 하지  
무단히 언약맺고 몇번을 몸을 급히  
든 정이 태산같이 많은 사람 다버리고  
힘코힘한 먼먼 길에 모시고 왔더니  
그다지도 무정하오 그다지도 야속하오  
산산수수 멀고먼데 돌아가라 분부하니  
이군불사 충신절개 나으리 하실 바요  
이부불경 굳은 절개 소녀의 직분53이라  
초수오산 험한 길에 이별하고 돌아가면  
적적한 빈방 안에 독수공방 어이하며  
십구세 이내 광음 속절없이 되었구나  
연연한54 이내 몸을 몇천리 훑어다가  
사고무친55 타도타향56 귀로막막57 이내 행지58

이다지도 버리시오  
나으리 하는 말이 괴야의 깊은 정을  
이별을 당두59하니 철석60아닌 이내 간장61  
점점이 녹아나고 검은머리 백발될 듯  
내 마음 이렇거든 연연한 너의 심회  
오죽하며 오죽할까 만단62으로 위로하고  
누수63로 위로하여 다시보자 쉬이보자64  
명년삼월 꽃피거든 내 한번 갈 것이니  
부디 조심 잘가거라  
남자의 평생일을 미리 기필65 못하나니  
다시 어찌 못볼소나  
군산월이 하는 말이 가련하오 이내 신세  
처량하오 이내 신세 다시 어찌 보오리까  
이천리 천리밖에 거영하여 오시리까  
다시보자 당부하면 나으리께 악담이요  
영영이별 하자하니 소녀신세 그만이라  
귀양곳 아니시면 북천을 어이오며  
소녀곳 아니시면 이별할 이 뉘 있을꼬  
이 길로 돌아가면 화촉동방66 빈방 안에  
의탁67없는 이내 신세  
뉘를 믿고 살잔말고  
해하성68 춘야월의 우미인69이 처량하고  
백수청산 저문 날의 정부심회 처량하고  
앞남산 상상봉의 망부석 슬프도다  
칠월칠석일 오작교의 견우직녀여 부러워라  
김학사 하는 말이  
선비의 잘한몸이 곱고고운 너의 자색70  
아름다운 너의 얼굴 유정71하기 부끄럽고  
이별하기 야속하다 박절하고 섭섭하다  
무사히 돌아가서 간특72한 너의 심장  
이부도73 상케마라74 이별주야 먹어봐라  
주인을 불러내어 술 한 잔 돌려잡고  
먹어봐라 잠수시오 눈물이 흘러내려  
반 잔 술이 한 잔 되고 한 잔 술이 넘쳤구나  
다금다금 돌아서서 남북으로 향하실제  
또 다시 당부하되 잘가거라 잘가시오  
군산월이 거동보소 추파75를 던졌 들어  
학사풍채 다시보고 우시며 허락하나

그 웃음이 진정한가 어이없는 웃음되고  
눈물이 솟아나고 울음화해76 우습이라  
소상강 기러기 짝을 잃고 날아간 듯  
무릉의 벽도화가 모촉광풍 떨어진 듯  
양협77의 눈물날려 홍상78에 누침79한 듯  
홍도화에 비맞은 듯 한 걸음에 돌아보고  
두 걸음에 보고 걸음마다 돌아보니  
산천도 낮이 없고 일월이 무광한 듯  
아침에 떠난 길이 일락서산80 달이 뜨네  
하루 온 길 생각하니 몇이나 되었던고  
아래 주막 떠나와서 촌촌전진 동일 길이  
윗 주막이 속소되네 사고무친 주막방에  
무정히 밝은 달은 화장창 높았는데  
난간에 비껴 전후사를 생각하니  
어이없고 기가 막혀 속맥이 방불하다  
흔자 그 말로 하는 말이 이곳이 어디메요  
북천이나 남천이나 고향이나 타향이나  
전생이나 이생이나 김학사가 무정턴가  
군산월이 박보던가 이곳에 죽자한들  
죽는 줄을 누가 알며 서러운 사정 누가 알꼬  
시름으로 눈물로 밤새우고 단독고신  
내 한몸이 어디로 가잔말고  
백설은 분분81하고 낙엽은 만산82한데  
남북을 분간없고 산도 설고 물도 선데  
지형이 아득하여 오던 길 생각하니  
벼면이 지내왔다 이럴 줄 알았으면  
익히 와볼 것을 이 지경이 뜻밖이라  
흙양에 돌아간들 부모동생 어이보며  
원근친척 어이볼꼬 비회를 자위조  
근근이 돌아가서 절행83을 적히고서  
일부종신 하여서라  
흥안이 백발되고 무릎이 귀념도록  
세월을 보내시니 그 아니 장할손가

남산동이진사효행록

각설1이라

이때 숙종대왕2 즉위3시에

남산밑에 사는 이진사는 본래 사족4이라

칠십 노모를 모시고 조석5 걸양6하고  
부인은 또한 낮이면 침선7하고  
밤이면 길쌈8하여 노친을 봉양하더니  
일일은9 졸연히10 모친의 병이 중하거늘  
약으로 치료하되 백약이 무효11라  
진사와 부인이 하도 망극12하여 하늘에 사배하고  
진사와 부인이 방에 들어오니  
눈을 떠보시고 말하기를  
정명13이라 어찌 살 수 있으리오  
하시고 인하여 운명14하시거늘  
부인과 진사 신체를 붙들고 대성통곡15하며  
천지를 부로 적시며 통곡한들 깨어올까

[각주]

- 112) 상거(常居) : 늘 거처하는 곳.
- 113) 낙락(落落) : 여기저기 떨어져 있음.
- 114) 요원(遼遠) : 아득히 멀.
- 115) 구존(俱存) : 양친이 모두 살아 계심.
- 116) 천륜지정(天倫之情) : 부모 자식 사이나 형제간에 저절로 우러나는 본능적인 애정.
- 117) 소친정회(所親情懷) : 비슷한 나이에 친하게 지내면서 생각하는 마음.
- 118) 일신안보(一身安保) : 제 한 몸 편안히 보전함.
- 119) 착심(着心) : 마음을 다잡아 명심함.
- 1) 기박하다 : 팔자, 운수 등이 사납고 복이 없음.
- 2) 역수(驛手) : 역참(驛站)의 일을 맡아보는 사람.여기서는 역(驛)이라는 장소를 가리킴.
- 3) 장사 : 장사하는 사람.곧 장수.
- 4) 번상(番上) : 차례로 숙직이나 당직을 하는 일.
- 120) 들춰 : 무엇을 찾으려고 자꾸 뒤지다.
- 5) 붕우(朋友) : 친구.
- 6) 호지(胡地) : 오랑캐가 사는 땅.
- 7) 광음(光陰) : 시간.나이.
- 8) 일부종신(一夫終身) : 한 남편만을 섬기며 일생을 마침.
- 9) 절행(節行) : 절개를 지키는 행실.
- 10) 본관(本官) : 고을의 수령을 이르던 말.
- 11) 수청(수청) : 아녀자나 기생이 높은 벼슬아치에게 몸을 바쳐 시중을 들던 일.
- 12) 심규(深閨) : 여자가 거처하는 깊이 들어앉은 방이나 집.
- 13) 이전사기(以前史記) : 이전의 역사 기록.
- 14) 어사(御使) : 왕명으로 특별한 사명을 띠고 지방에 파견되던 임시 벼슬.
- 15) 재회(再會) : 다시 만남.
- 16) 안전(眼前) : 눈 앞.
- 17) 정배(定配) : 죄인을 지방이나 섬으로 보내 정해진 기간 동안 그 지역 내에서 감시를 받으며 생활하게 하던 형벌.
- 18) 액운(厄運) : 액을 당할 운수.
- 19) 첫안면(顏面) : 처음으로 얼굴을 대함.
- 20) 언약(言約) : 말로 약속함.
- 21) 육예(六藝) : 고대 중국 교육의 여섯 가지 과목.예(禮), 악(樂), 사(射), 어(御), 서(書), 수(數)를 말함..
- 22) 회비(悔非) : 그릇된 것을 뉘우침.
- 23) 사배(四配) : 네 번 절함.
- 24) 희희낙락(喜喜樂樂) : 매우 기뻐하고 즐거워 함.
- 25) 행장(行裝) : 여행할 때 쓰는 물건과 차림.
- 26) 하직(下直) : 무슨 일이 마지막이거나 무슨 일을 그만뒀음을 이르는 말.

- 27) 오매불망(寤寐不忘) : 자나깨나 잊지 못함.
- 28) 거치(据置) : 그대로 둠.
- 29) 객회(客懷) : 객지에서 느끼게 되는 울적하고 쓸쓸한 느낌.
- 30) 일희일비(一喜一悲) :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슬픔.
- 31) 천첩(賤妾) : 종이나 기생으로서 남의 첩이 된 여자.
- 32) 삼종지법(三從之法) : 여자가 따라야 할 세 가지 도리를 이르던 말.어려서는 아버지를, 결혼해서는 남편을, 남편이 죽은 후에는 자식을 따라야 했음. 『예기』의 의례(儀禮) <상복전(喪服傳)>에 나오는 말.
- 33) 해배(解配) : 귀양을 풀어 줌.
- 34) 향산(鄉山) : 고향.
- 35) 불경이부(不更二夫) : 정절을 굳게 지키어 두 남편을 섬기지 않음.
- 36) 무恙(無恙) : 몸에 병이나 탈이 없음.
- 37) 사군제법(事君諸法) : 남편을 모시는 여러 가지 법도.
- 38) 불원천리(不遠千里) : 천리를 멀다 않고.
- 39) 남복(男服) : 남자의 옷.여자가 남자의 옷을 갈아 입음.
- 40) 취흥(醉興) : 술에 취하여 일어나는 흥취.
- 41) 풍설(風雪) : 눈바람.
- 42) 자중(自重) : 행실을 삼가고 품위를 지켜 자기를 소중히 함.
- 43) 적객(謫客) : 귀양살이를 하는 사람.
- 44) 삼추(三秋) : 세 번의 가을.곧 3년이라는 시간.
- 45) 노독(路毒) : 먼 길에 지치고 시달려서 생긴 피로나 병.
- 46) 태심(太甚) : 너무 심함.
- 47) 조반(朝飯) : 아침밥.
- 48) 변색(變色) : 얼굴빛을 바꿈.
- 49) 화류시(花柳時) : 꽃과 버들이 필 때.
- 50) 비회(悲懷) : 마음 속에 서린 슬픈 시름이나 회포.
- 51) 수란(愁亂)하고 : 시름이 많아서 정신이 어지럽고.
- 52) 향사(鄉思) : 고향생각.
- 53) 직분(職分) : 마땅히 해야 할 본분.
- 54) 연연한 : 섬약한.
- 55) 사고무친(四顧無親) :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음.
- 56) 타도타향(他道他鄉) : 다른 고을과 다른 고향.
- 57) 귀로막막(歸路漠漠) : 돌아갈 길이 아득함.
- 58) 행지(行止) : 행동거지.
- 59) 당두(當頭) : 기일이나 시기가 가까이 닥쳐옴.박두(迫頭)와 같은 말.
- 60) 철석(鐵石) : 매우 굳고 단단한 것을 비유한 말.
- 61) 간장(肝腸) : 간과 창자.곧 마음.
- 62) 만단(萬端) : 수없이 많은 갈래.

- 63) 누수(淚水) : 눈물.
- 64) 쉬이보다 : 가볍게 또는 쉽게 보다.
- 65) 기필(期必) : 꼭 이루어지길 기약함.
- 66) 화촉동방(華燭洞房) : 첫날밤에 신랑 신부가 자는 방.
- 67) 의탁(依託) : 어떤 것에 몸이나 마음을 의지하여 맡김.
- 68) 해하성(垓下城) : 항우(項羽)가 사면초가(四面楚歌)를 들으며 우미인(虞美人) 앞에서 시를 읊은 곳이 해하성임.
- 69) 우미인(虞美人) : 중국 진(秦)나라 말기 항우의 여인으로 절세 미인.항우가 한(漢)나라 유방에게 해하에서 포위되었을 때 자살하였다고 함.
- 70) 자색(姿色) : 여자의 고운 얼굴이나 모습.
- 71) 유정(有情) : 인정이나 동정심이 있음.
- 72) 간특(奸慝) : 간사하고 악독함.
- 73) 이부도(二夫道) : 두 명의 지아비를 섬기지 않는 도리.
- 74) 상케마라 : 상하게 하지 마라.
- 75) 추파(秋波) : 이성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은근히 보내는 눈길.
- 76) 울음화해 : 울음이 변해.
- 77) 양협(兩頰) : 얼굴의 두 뺨.
- 78) 홍상(紅裳) : 붉은 치마.
- 79) 누첨(淚添) : 눈물을 더함.
- 80) 일락서산(日落西山) : 해가 서산으로 떨어짐.
- 81) 분분(紛紛) : 어지럽게 흩날림.
- 82) 만산(滿山) : 산에 가득함.
- 83) 절행(節行) : 절개를 지키는 행실.
- 1) 각설(却說) : 말이나 글에서 이제까지 다루던 내용을 그만두고 화제를 다른 쪽으로 돌림.
- 2) 숙종대왕(肅宗大王) : 조선의 19대 왕.
- 3) 즉위(卽位) : 왕위에 오름.
- 4) 사족(士族) : 문벌이 높은 집안.
- 5) 조석(朝夕) : 아침저녁.
- 6) 걸양(乞養) : 빌어먹는 아이를 제 자식처럼 거두어 기름.
- 7) 침선(針線) : 바느질.
- 8) 길쌈 : 실을 내어 옷감을 짜는 모든 일을 통틀어 이르는 말.
- 9) 일일은 : 하루는.
- 10) 졸연(猝然)히 : 갑작스럽게.
- 11) 무효(無效) : 효용이 없음.
- 12) 망극(罔極) : 어버이나 임금에게 상서롭지 못한 일이 생기게 되어 지극히 슬픔.
- 13) 정명(定命) : 날 때부터 정해진 목숨.
- 14) 운명(殞命) : 사람의 목숨이 끊어짐.
- 15) 대성통곡(大聲痛哭) : 큰 소리로 목놓아 울부짖음.



본자료는 행정안정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